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전력 생산

동서발전, 동해에서 우드칩 연료로 전력 공급 ... CO2 감축 기대

한국동서발전(대표 장주옥)은 동해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소가 240시간의 신뢰도 운전을 거쳐 7월30일 오전 9시부터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산림 부산물을 재활용한 우드칩을 연료로 채용한다.

동해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2011년 12월 착공해 20개월만에 준공됐으며, 국내 최대인 30MW급으로 순환유동층(CFSB)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혼합하지 않고 목질계 고형연료만으로 가동된다.

발전량은 22만3380MWh에 달해 7만3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축 효과는 10만9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서발전은 연료로 채용되는 우드칩 21만톤을 목재 재활용기업들과 우드칩 공장을 통해 경쟁입찰로 조달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3/07/30>